

한국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WEF Issue & Insight

2025년 7월 28일

C4IR Korea Global Intelligence Hub (koreago.net)

새로운 국제주의자들: 창업자들이 분열된 세계를 통합하는 방법 (The new internationalists: How founders are uniting a divided world)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이 2025년 7월 14일에 세계경제포럼 웹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을 한국(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번역한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이 번역의 내용이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글에 나타난 견해는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세계경제포럼이나 한국(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대니 라이머(Danny Rimer)

파트너, 인덱스벤처스(Index Ventures)

- 점점 더 심해지는 정치적 민족주의와 탈세계화와는 대조적으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현대판 국제주의자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 오늘날 스타트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심지어 시드 단계 이전이나 시드 단계에서부터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AI는 원활한 다국어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분산된 인재를 활용하며, 스타트업이 기존의 느린 도입 방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종교 갈등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이 영토를 차지하고 권력을 중앙 집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상업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의 갈등적인 정치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유럽과 중동 전역의 무역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중립적인 중개인을 통해 숙적인 스페인과 무역을 유지했습니다.

런던에서 앤트워프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무역 회사들은 신용장, 해상 보험, 주식회사 등 국경을 넘나드는 위험을 관리하고 자본을 모으기 위한 금융 혁신을 고안했습니다.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시 한번 국경 안에서 장벽을 쌓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들은 또다시 시대의 진정한 국제주의자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번영을 구축함으로써 조용히 세상을 재

편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지정학적 변동성은 글로벌 야망으로 부터의 후퇴를 예고했을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AI는 유럽 기업들이 기존 시스템을 우회하여 AI 기반 솔루션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독특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 여행이 중단되면서 재택근무와 디지털 상거래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창업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확장을 지속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국제화는 가속화되는 동시에 민주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규모를 달성하고 이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많으며, 이는 점점 더 많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탄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닉 스토론스키(Nik Storonsky)가 2015년 레볼루트(Revolut)를 설립했을 당시, 그는 영국 बैं킹 앱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재정을 관리하고 수수료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현재 레볼루트는 35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글로벌로

저와 이야기를 나눠본 많은 창업자들이 수십 개국 출신 인재를 채용하고 여러 국가에 진출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국경은 시대착오적 개념이며 재능 있는 인재는 어디에서나 나옵니다. 원격 및 분산 근무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더욱 강화합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의 슈퍼 유니콘 기업 위즈(Wiz)의 창업자 아미 루트왁(Ami Luttwak)은 "글로벌이란 민첩함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합니다.

B2B 소프트웨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인 위즈 팀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확장하는 것을 확장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치에 관계없이 가장 전문적인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 덕분에 팀은 단 18개월 만에 연평균 매출 1억 달러를 달성하고, 결국 구글로부터 32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제주의자들: 글로벌 기업을 창립한 사람들 (이미지: Index Ventures)

이스라엘을 비롯한 소규모 국가들의 스타트업은 국내 시장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기에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슈퍼셀(Supercell)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일카 파나넨(Ilkka Paananen)은 핀란드 출신이라는 점이 그가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생각"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슈퍼셀은 설립 후 몇 년 만에 유럽 최초로 **기업 가치 100억 달러**를 돌파한 기술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점은 대규모 시장 출신의 스타트업조차도 더 빠르게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유럽 스타트업은 그 어느 때보다 일찍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시드 이전 또는 시드 단계에서 해외로 확장하는 기업의 비율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33%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64%에 달합니다.

글로벌 진출에는 여전히 신중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전략이나 성숙도가 부족한 상태로 너무 일찍 진출하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확장은 또한 기업이 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운영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눈에 띄는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탄탄한 현지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플레이북을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기업에게 유효한 접근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선택지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글로벌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것만이 아니며 점점 더 기대되는 추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을 먼저 목표로 하는 미국 외 스타트업은 국내에 머물렀던 스타트업보다 규모 확장률이 두 배나 높았습니다.

"...오늘날의 창업자들은 정치적 분열을 초월하는 다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스타트업

틈새 시장의 B2B 스타트업조차도 링크드인(LinkedIn),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유통업체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첫 12개 고객 정도를 원격으로 여러 국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은 이러한 추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산된 인재의 규칙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에는 단일 지점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경쟁을 위해 글로벌 인재 풀을 활용해야 합니다.

AI는 또한 스타트업이 원활한 다국어 협업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독일의 AI 번역 플랫폼인 딥엘(DeepL)과 같은 기업들은 팀들이 언어 장벽을 넘어 전례 없는 정확도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소통이 단순히 사람 간의 소통을 넘어 AI 에이전트 간의 소통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AI가 유럽 기업들에게 기존의 소프트웨어 인수 모델을 뛰어넘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럽 기업들은 신기술 도입에 더딘 편이었으며, 대개 혁신을 위해 미국을 찾고, 대서양을 건너 검증된 시스템을 수년 후에야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I는 유럽 기업들이 기존 시스템을 우회하고 AI 기반 솔루션으로 바로 전환하여 기술 도입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독특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상인들이 국가 간 전쟁 속에서도 무역망을 유지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창업자들은 정치적 분열을 초월하는 다리를 건

설하고 있습니다.

탈세계화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연결을 향한 이러한 놀랍도록 회복력 있는 추세는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가장 강력하고 낙관적인 힘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는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풀뿌리적인 세계화로, 더욱 연결된 세상을 위해 경제적, 문화적 구조를 함께 엮어냅니다.

[WEF 원문 사이트 보기](#)